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양육경험의 차이 : 보령 베이비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전 을 정(Miami Univ. 조교수) · 한 경 혜(서울대 교수) · 박 혜 준(서울대 부교수)
장 미 나(서울대 연구원) · 이 보 람(서울대 박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질병여부, 발달수준이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만족감과 같은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자료이다. 조사는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용품 개발 및 생산회사의 회원 중 영아(0-2세), 유아(3-5세), 학령초기(6-8세) 자녀를 두었으며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 2,188명을 선정하여 인터넷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 수준(영아, 유아) 및 심리사회적 건강(학령기), 어머니의 정서 상태(자아 존중감, 우울, 만족도 및 행복감)와 양육 경험(양육 스타일, 양육태도, 양육 효능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것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아기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더 우울하며,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발달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수준이 정상일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결혼만족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방식은 높고 인지적인 자극을 제공하거나 권위 및 규칙을 강조하는 양육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영아기 어머니는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한편,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이 없는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태도가 조금 더 긍정적이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과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방식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발달수준이 정상일수록(빠를수록) 전 연령 어머니들의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자녀의 질병은 어머니의 정서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더욱 편안하게 하고, 이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를 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